

귀인 경향에 따른 도덕성(도덕신념, 판단, 행동) 발달 분석

Developmental Analysis of Morality(Belief, Judgment & Behavior) in Relation to Attribution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하영희

부교수 박혜원

Dep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Univ. of Ulsan

Young-Hee Ha

Associate Prof. : Hyewon Park Choi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V. 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Different aspects of morality, namely, moral belief, moral judgement and moral behavior have been studied separately.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se three aspects of morality in relation to internal attribution in one sample. A total of 371, third- and sixth-grade children from Masan city were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moral belief, moral judgement, and attributional tendency. In addition, children's moral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teachers' 5-item rating scale.

A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but low correlations among three components of morality. There were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moral belief and moral judgement but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moral behavior. Compared to third graders, sixth graders were higher in moral judgement but lower in moral belief. Social experience as well as cognitive development on moral relativity could explain this paradoxical developmental trend in moral belief. There was a sex difference only in moral behavior : Girls were rated higher in moral behavior than boys.

Internal attribu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three aspects of morality, .15 with moral belief, .45 with moral judgement, .14 with moral behavior,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developmental difference but no sex difference in attributional tendency : Sixth graders reported higher internal attribution than third graders.

However, there was no developmental difference in correlations among internal attribution and three aspects of morality. Most importantly, internal attribution explained morality better than either age- or sex-variable. It was suggested that educational programs on morality need to focus on the internalization of it.

I. 서 론

도덕성의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자들 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이 급증하여 도덕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지금, 도덕교육에 대한 일대 반성과 재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Piaget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Piaget의 도덕성 연구는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은 자신의 인지능력에 따라 도덕판단을 한다고 강조한다. Piaget는 도덕성의 발달은 타율적 도덕단계에서 자율적 도덕단계로 이뤄진다고 보고하였다.

Piaget는 도덕추리 발달이 원인지각 능력의 질적인 변화와 밀접하다고 보고 원인지각에 대한 인지능력의 발달이 도덕추리의 선행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Piaget의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일반적 행동지각을 설명하기 위해 발달한 귀인이론을 도덕성 연구와 관련시키려는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로 Ross와 Ditecco(1975)는 도덕판단의 기저에 깔린 귀인과정을 원인지각과 더불어 책임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또한 Lepper(1981)는 자신의 친성이 착하다고 스스로 내적귀인을 하는 사람은 일탈유혹에 잘 저항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Reeder와 Spores(1983)도 도덕성에 대한 귀인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상황적 요구에 귀인하기 보다는 행위자의 도덕성에 더 많이 귀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현섭(1990)이 도덕 및 인습사회에 대한 일탈행동 귀인경향 분석연구에서 아동들은 일탈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순간적 기분 즉 내적원인에 귀속시킨다고 하였다.

도덕성과 귀인경향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도 불

구하고 최근까지 아동의 도덕성 연구에서 귀인을 변인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귀인연구는 아동의 도덕성 귀인발달을 연구한 김동기(1985)와 도덕 및 인습사태에 있어서 일탈행동의 귀인경향을 분석한 이현섭(1990)의 연구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정의적인 면, 인지적인 면, 행동적인 면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정의적 요소는 규범에 합치된 행동을 하려는 심리적 특성을, 도덕성의 인지적 요소는 무엇이 도덕적 규범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행동적 요소는 도덕적 규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덕성의 세 측면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도덕사태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의와 인지와 행동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여러 차원을 모두 고려한 다각적인 도덕성 발달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인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즉 도덕적 신념과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동과 귀인경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귀인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과 성차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현섭, 1990, 재인용)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도덕성(도덕신념, 판단, 행동) 발달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귀인경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귀인경향에 따라 도덕성 발달은 달라질 것이다.
- 가설4.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은 연령, 성별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도덕성은 지적 측면인 인지적 도덕성과 도덕성의 행동적 측면인 행위적 도덕성으로 구분된다. 이는 특히 인간의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행동이 불일치를 보이는 점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또한 도덕의 내적 측면은 지적인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도덕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심리적 요소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는데 이 때 정의적 요소에는 도덕적 감성, 신념, 태도, 인지적 요소에는 도덕적 개념, 판단, 행동적 요소에는 도덕적 실천력 등이 포함되어진다. 도덕성에 관한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서로 강조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어 정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정신분석 이론,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지발달 이론, 행동적 요소를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이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차원이므로 다른 것과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이돈희,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범에 합치된 행동을 하려는 태도를 도덕신념으로, 무엇이 도덕적 규범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도덕판단으로, 도덕적 규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도덕행동으로 정의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Piaget, 1932; 이현우, 1988)과 성차(Piaget, 1932; 원효현, 1987)에 대한 비교외에 양육태도(Henderson, 1981; 이봉선, 1989), 사회경제적 지위(원효현, 1987), 자아정체감(김태권, 1990) 및 귀인경향(Reeder

& Spores, 1983; 김동기, 1985; 이현섭, 1990) 등이 연구되어 왔다.

Piaget와 Kohlberg는 연령을 도덕성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인지발달 이론에서 Piaget의 도덕발달 단계를 보면 연령과 함께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져 도덕수준이 타율적 도덕에서 자율적 도덕으로 발달해 간다. Kohlberg의 도덕 발달에 있어서도 인습이전 수준에서 인습수준, 인습이후 수준으로의 발달은 연령의 증가와 병행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령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도덕성은 연령과 함께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t, 1983; 이현우, 1988; 김상윤, 1988). 그러나 Magoon과 Garrison(1976)은 연령 자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어서 성인이 되어도 전인습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박덕원(1987)은 도덕 의식과 실천행위와의 관계연구에서 협동심이 들어가는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상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성 점수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도덕성과 성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Hoffman(1984)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내면화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재혁(1986)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도덕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지발달 이론에 기반을 둔 Kohlberg(1988)와 Aronfreed(1961)는 여아보다 오히려 남아들이 더 빨리 성숙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또한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둔 프로이트도 여아의 도덕성이 남아보다 낮거나 단순하다고 하였다.

도덕성에 있어서 성별간 차이가 없다는 Piaget의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도 많다. 원효현(1987)은 그의 도덕성 변인 연구에서 성차가 없다고 하였으며, 김상윤(1989)도 인지적, 비인지적 도덕성에서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도덕성과 귀인

도덕성과 귀인은 인과성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도덕성의 문제를 도덕적 판단의 측면에서 연구한 Piaget와 귀인이론에서

의 “도덕적 귀인연구”는 모든 원인에 대한 인지과파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즉 도덕사태에 있어서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설명 방식은 도덕적 행동자가 바람직한 도덕신념이나 도덕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도덕성의 내면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내면화는 도덕적 행동 결과를 내적으로 귀인하는나 외적으로 귀인하는나 하는 귀인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귀인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과론적 설명을 하며, ‘왜’로 시작되는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즉 기본적으로 귀인이론은 자신 및 타인의 행동을 유발시킨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접근으로써 Heider(1958)에 의하여 시작되어 Jones와 Davis(1965) 그리고 Kelley(1967)로 이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귀인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관련변인으로 먼저 연령과 성차를 들고 있다. 귀인과 연령과의 관계 연구에서 Crandall, Katkovsky, & Crandall (1965)은 아동의 귀인경향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비교적 안정된다고 하였고, Lifshitz(1973)는 내적귀인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Weiner(1974)는 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귀인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박영신(1979)은 5세, 7세, 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귀인과정을 연구한 결과, 9세 아동이 행동의 원인지각에 대한 추리의 정확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동기(1985)는 도덕성 영역을 정직, 질서, 책임, 예의 및 이타성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정직은 8세 때, 질서는 5~6세 때, 책임은 10세부터, 예의는 10세 이후부터, 이타성은 5세 아동도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현섭(1990)은 도덕 사태에서의 아동의 귀인은 연령의 증가로 더불어 성향적 차원(내적귀인)이 감소하고 상황적 차원(외적 귀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귀인과 성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여아의 경우 성공의 원인을 주로 외적귀인으로 돌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적귀인을 한다는 것이다(Feath-

er, 1969; Nicholls, 1978; Levenson, 1973). 또 다른 하나는 귀인과 성별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Stipek & Hoffman, 1980; 강원희, 1985; 안귀덕, 1986; 이현섭, 1990). 귀인에 있어서 성차변인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연령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과 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적귀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이 적고 폭력이나 강제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외적귀인하는 사람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Bryant는 IAR검사(Intellectual Achievement Responsibility)를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내적귀인을 하는 학생이 교사와 상호보완 관계가 좋다고 보고하였으며, Carman는 외적귀인을 하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일삼고 반사회적 행동도 많이 한다고 하였다(안귀덕, 1986, 재인용). Sosis(1974)는 내적귀인자들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Lepper(1981)는 자신의 천성이 착하다고 스스로 내적귀인을 하는 사람은 일탈 유혹에 잘 저항한다고 하였다.

도덕성과 귀인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귀인의 발달을 연구한 김동기(1985)와 도덕 및 인습사태에 있어서 일탈행동의 귀인경향에 관한 이현섭(1990)의 연구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도 내적귀인 경향의 발달과 도덕성 발달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경향에 따른 도덕성 발달을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마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K 초등학교의 학생들로서, 학년당 5개 학급씩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이루어진 3학년, 6학년 남·녀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으로 3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귀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비교적 안정된다는 Crandall 등(1965)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발

달 경향 측면에서 연령 차이를 보기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6학년울 선정하였다. 원래 표집수는 409명이었으나 자료분석 과정에서 도덕판단 단계가 불분명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는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371명의 자료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아동들 중 남자는 191명, 여자는 180명이었고 3학년 아동은 169명, 6학년 아동은 202명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신념 검사

이 도구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과정과 도덕신념 평가 기준(한국교육개발원, 1985) 및 박덕원(1987)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정직, 협동, 책임, 예의 및 준법을 주제로 하여 한 문항씩 되어 있다. 질문의 내용은 거짓말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는 것, 나에게서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은 일이라도 단체행동에서 필요한 협동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법이나 질서 지키기, 어른 공경, 싫은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의 그 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등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는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모두 2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이 다섯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60이었다.

2) 도덕판단 검사

본 연구는 도덕판단 검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Rest(1983)의 객관식 척도인 DIT(Defining Issues Test)를 김상윤(1982)이 수정 번안한 '나의 생각'을 사용하였다. 번안된 도구의 단계별 재검사 신뢰도는 단계 2(.43), 단계 3(.75), 단계 4(.77), 단계 P(단계 5, 6; .78)이었다. 원래 Rest의 DIT에 대한 신뢰도의 범위 역시 .27~.82 등으로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검사지의 특성은 DIT처럼 6개의 도덕적 딜레마 이야기가 제시되고 각각의 이야기에 12개의 질문이 있으며 각 질문은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그 12개의 질문에 모두 답한 후 가장 중요한 질문 4개를 선정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1, 2, 3, 4 번호를 매겨 점수를 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 12개의 질문들은 모두 Kohlberg의 도덕 단계 특성과 관계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검사도구 내용을 보면 DIT에 나오는 6개의 딜레마를 수정 번안한 것으로서, Kohlberg의 '하인즈 딜레마'와 같은 상황인 '뜸씨의 아내'를 포함하여 도덕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딜레마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각 딜레마에 따른 피험자의 의견을 묻는 12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과 12개의 질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의 질문번호 기입방법은 DIT와 같다.

3) 교사용 도덕행동 평정

아동의 도덕 실천 행동의 평가를 위해 초등학교 도덕 교과 과정과 도덕행동 평가 기준(한국교육개발원, 1985) 및 박덕원(1987)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섯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매우 자주, 자주, 간혹, 전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거짓말이나 남의 물건 탐내기, 어려운 친구와 이웃 도와주기, 공중도덕 및 질서 지키기, 예의바른 행동과 고운 말 사용,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정도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용 도덕행동 평정은 문항당 최고 점수가 4점으로 모두 2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행동이 높기 평가된 것이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5였다.

4) 귀인 양식 검사

귀인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randall 등(1965)이 제작한 IAR 검사를 심우엽(1982)이 번안하면서 본래의 32문항을 52문항으로 늘려 만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문제원인의 지각 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며, 두 개의 답중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답은 내적귀인(문제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림)을, 다른 하나의 답은 외적귀인(문제원인

을 상대방, 우연, 운명 등으로 돌림)을 의미한다. 문항내용은 학업과 지적 행동에 대한 신념,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인지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부름을 잘못하였다고 꾸중을 들었을 경우 심부름을 잘못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주의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의 선택에는 내적귀인(1점)으로 '부모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의 선택에는 외적귀인(0점)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전체 점수범위는 0점에서 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귀인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2였다.

3. 절차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1995년 6월 30일, 7월 1일 이틀에 걸쳐 3학년 34명, 6학년 34명을 대상으로 도덕신념 검사지, 도덕판단 검사지, 도덕행동 평정도, 귀인검사지를 사용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지의 난이도나 실시 시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검사는 검사실시 요령을 배운 검사대상 학교교사이며 대학원생인 한 명과 본 연구자가 1995년 9월 11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직접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귀인 검사, 도덕판단 검사, 도덕신념 검사는 집단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험자가 직접 읽고 반응하였다. 검사 순서는 1교시에 귀인 검사와 도덕신념 검사를 하였고 2교시에 도덕판단 검사를 하였다. 도덕행동 평가는 피험자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검사를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총 409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지만 도덕판단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도 속하지 않는 응답자 22명과 무성의한 응답자 16명을 제외하여 실제 분석자료에 사용된 표집수는 371명이었다.

4. 자료 분석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도덕성 발달과 귀인경향

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이원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귀인경향에 따른 도덕성 발달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이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을 연령간, 성별로 나누어 각각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성별간의 상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Z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귀인, 연령,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는 SPSS PC*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연령, 성차 분석

아동의 도덕성에 있어서 도덕신념, 도덕판단, 도덕행동은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덕신념에 대한 연령, 성별간 차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도덕신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도덕신념에 대한 변량분석(N=371)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비
연령별(A)	1	13.11	13.11	2.54
성별(B)	1	19.25	19.25	3.73
A × B	1	1.58	1.58	.31
집단내	367	1892.81	5.16	
전체	370	1926.75	5.21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연령과 성별간 상호 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도덕판단에 대한 연령, 성별간 차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도덕판단은 연령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도덕판단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간 도덕판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도덕판단에 대한 변량 분석(N=371)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비
연령별(A)	1	.60	9.60	24.25***
성별(B)	1	.02	.02	.06
A × B	1	.00	.00	.00
집단내	367	145.31	.40	
전체	370	154.93	.42	

*** p<.001

도덕행동에 대한 연령, 성별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연령간 도덕행동 수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간 도덕행동 수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아보다 여아의 도덕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도덕행동에 대한 변량분석(N=371)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비
연령별(A)	1	.61	.61	.06
성별(B)	1	22.845	228.45	22.30***
A × B	1	1.67	1.67	.16
집단내	367	3749.14	10.22	
전체	370	3979.88	10.766	

*** p<.001

났다.

아동의 귀인경향은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령간 내적귀인 경향은 변량분석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내적귀인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내적귀인에 대한 변량 분석(N=371)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비
연령(A)	1	259.98	259.98	7.32**
성별(B)	1	5.82	5.82	.16
A × B	1	29.92	29.92	.84
집단내	367	13033.63	35.51	
전체	370	13329.35	36.03	

** p<.01

2. 내적귀인 경향에 따른 도덕성 발달 경향

내적귀인 경향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의 경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귀인, 도덕신념, 도덕판단, 도덕행동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적귀인과 도덕성과의 상관계수는 도덕신념이 .15, 도덕판단이 .45, 도덕행동이 .14이었다. 이것은 내적귀인 경향과 도덕신념, 도덕판단, 도덕행동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혀주었다. 즉 내적귀인 경향이 높을수록 도덕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표 5>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관계(N=371)

변수	Bel	Jud	Beh	Iat
도덕신념(Bel)	1.00			
도덕판단(Jud)	.00	1.00		
도덕행동(Beh)	.21***	.12**	1.00	
내적귀인(Iat)	.15**	.45***	.14**	1.00

*** P<.001 ** P<.01

기서 특히, 도덕판단이 .45로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은 귀인요인이 인지적 측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도덕신념과 도덕행동, 도덕판단과 도덕행동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그 상관관계는 .21, .12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오늘날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도덕적 인지와 행위의 불일치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도덕적 인지와 행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연령, 성별에 따른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관계 및 차이검증

도덕성과 내적귀인간의 상관에서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도덕성과 내적귀인간의 상관을 연령간, 성별로 각각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 Z 계수로 환산하여 Z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표 6,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났듯이 도덕판단에서만 성별간 유의

<표 6> 연령에 따른 도덕성과 내적귀인간의 상관 및 차이검증 (N=371)

		남		여		전 체	
		r	z'	r	z'	r	z'
도 덕 신 념	3 학년	.20*	.20	.22*	.22	.20*	.20
	6 학년	.19*	.19	.06	.06	.13	.13
	Z 값	.07		1.08		.69	
도 덕 판 단	3 학년	.31**	.32	.60***	.70	.44***	.47
	6 학년	.39***	.41	.51***	.57	.46***	.49
	Z 값	-.69		.81		-.18	
도 덕 행 동	3 학년	.08	.08	.16*	.16	.10	.10
	6 학년	.28**	.29	.12	.12	.20**	.20
	Z 값	-1.47		.26		-1.03	

*** P<.001 ** P<.01 * P<.05

<표 7> 성별에 따른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 및 차이검증

		3학년		6학년		전 체	
		r	z'	r	z'	r	z'
도 덕 신 념	남	.20*	.20	.19*	.19	.19*	.19
	여	.22*	.22	.06	.06	.12	.12
	Z 값	-.13		.92		.68	
도 덕 판 단	남	.31**	.32	.39***	.41	.34**	.35
	여	.60***	.70	.51***	.57	.57***	.65
	Z 값	-2.41*		-1.11		-2.80**	
도 덕 행 동	남	.08	.08	.28**	.29	.15*	.15
	여	.16*	.16	.12	.12	.14*	.14
	Z 값	-.55		1.20		.11	

*** P<.001 ** P<.01 * P<.05

한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이것은 도덕성 발달에 내적귀인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비교

도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내적귀인, 연령,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성별은 가변수 처리하여 남이는 0, 여이는 1로 하였다.

<표 8> 도덕성에 있어서 관련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도덕신념	내적 귀인	.07	.17***	.05
	연령	-.49	-.11*	
	성별	.47	.10*	
도덕판단	내적 귀인	.05	.43***	.24
	연령	.25	.19***	
	성별	.03	.02	
도덕행동	내적 귀인	.08	.15**	.08
	연령	-.20	-.03	
	성별	1.60	.25***	

*** p<.001 ** p<.01 * p<.05

<표 8>에서 보면, 독립변수들 중 먼저 도덕신념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내적귀인($\beta=.17$)이며, 연령 및 성별은 내적귀인 다음으로 도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도덕판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도 내적귀인($\beta=.43$)이며 그 다음이 연령이었다. 끝으로 도덕행동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25$)이며 그 다음이 내적귀인($\beta=.15$)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는 도덕신념 5%, 도덕판단 24%, 도덕 행동의 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덕신념에 대한 연령, 성별간 차의 유의

성 검증에서 변량분석(<표 1> 참조)한 결과 도덕신념은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적귀인을 넣어서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도덕신념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음이 밝혀졌다.

V. 결론 및 논의

도덕성의 세가지 측면 모두에 있어서 연령, 성별 그리고 구인경향에 따른 수행을 분석하기 위하여 37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도덕신념은 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내적귀인이라는 매개변수로 인하여 연령이 낮은 집단이, 또 남아보다는 여아집단이 도덕신념 수준이 더 높았다. 이것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내적귀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도덕신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Piaget의 타율적 도덕성 아동들은 주어진 규범내에서만 생각하는 규칙의 불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6학년 아동의 도덕신념 수준이 3학년 아동보다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인지적 성숙에 따라 Piaget의 도덕적 상대성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반면에 인지적 요소인 도덕판단과는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사태에 대한 보편적 신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도덕신념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도덕신념에 대한 발달경향이 연령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후속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도덕판단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6학년 아동의 도덕판단 수준이 더 높았다. 이것은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서 도덕성을 규정한 Piaget와 Kohlberg의 인지발달 도덕성 이론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김상윤(1988)

과 이현우(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도덕판단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성차에 대한 Kohlberg나 이봉선(198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Piaget의 이론과 일치하며 국내에서는 원효현(198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넷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도덕행동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도덕행동이 아동의 인지능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인지발달은 도덕발달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5>에서 보았듯이 도덕판단과 도덕행동간의 상관이 낮음은 오늘날 도덕적 인지와 행위와의 괴리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괴리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인지와 행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도덕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남아보다는 여아의 도덕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이것은 남아와 여아의 사회화과정의 다른 연유에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도덕적 행위를 더 많이 강조하는 한국문화의 사회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도덕적 행동은 아동 자신의 도덕적 내면화와 함께 주위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도덕적 행동을 연구한 홍운섭(197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도덕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정한 관찰기간을 두고 직접 관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도덕행동 평정이 1학기동안 아동의 평상시의 도덕행동을 관찰해 온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거짓보고 가능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의 자기보고식 평정보다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도덕행동 평정은 담임교사들간의 평정차이나 측정도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 역시 후속 연구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내적귀인 경향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식능력 및 효과의 증가를 지각하는 인지능력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향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

지적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어떤 행동의 원인을 외적요인에 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특성에 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곱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귀인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귀인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어서 성차가 있다는 Feather(1969)와 Nicholls(1978), Levenson(1973)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성차가 없다는 강원희(1985), 안귀덕(1986), 이현섭(1990)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여덟째, 내적귀인 경향이 높을수록 도덕신념, 도덕판단, 도덕행동 수준이 높았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아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나 자기비난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내적인 요인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째, 도덕성과 내적귀인의 상관성이 연령,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내적귀인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내적귀인, 연령, 성별 이 세 변수 중 도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내적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도덕신념과 도덕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적었다. 이것은 도덕성이 다른 관련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정체감 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도덕신념, 도덕판단, 도덕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 정의, 인지적 측면이 도덕의 외적인 행동 측면과 상호작용을 이루는 기제에 대해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 도덕성 측정도구의 개발이다. 특히 도덕판단의 측정도구에 비해 도덕신념 및 도덕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도덕성과 귀인의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 검증 및 두 변인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요망된다. 즉 도덕성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도덕성과 관련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등에 따라 아동의 도덕성과 귀인과의 관계가 또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덕성과 관련있는 이러한 변인을 함께 고려한 도덕성 귀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원희(1985). 가정환경과 아동의 귀인성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고재혁(1986). 한국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 -콜버그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동기(1985). 한국 아동의 도덕성 귀인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김상윤(1982). DIT에 의한 도덕발달 수준 I 과 II 간의 결정적 이행기의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1988).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 발달 경향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김태권(1990). 중학생의 도덕판단 능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박덕원(1987). 도덕의식과 실천행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박영신(1979). 아동의 귀인과정의 발달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심우섭(1982). 귀인이론이 교육에 주는 시사.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제22권.
- 10) 안귀덕(1986). 귀인성향, 지각 학습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원효현(1987). 도덕성 발달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이돈희(1992). 도덕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13) 이봉선(1989).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력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이현섭(1990). 도덕 및 인습사태에 있어서 일탈행동의 귀인경향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5) 이현우(1988). 도덕추리와 도덕판단과의 관계에 미치는 여섯가지 관계변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한국교육개발원(1985). 도덕과의 새로운 학습평가 방안 탐색연구(연구보고 RR 85-27).
- 17) 홍윤섭(1971). 아동의 선정된 특성에 따라 윤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Aronfreed, J. (1961). The nature, variety, and social patterning of moral responses to transgress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223-240.
- 19) Crandall, C., Katkovsky, W. & Crandall, J.(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own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6, 91-109.
- 20) Feather, N.T.(196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valance real of success and failure in relation to initial confidence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129-144.
- 21)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Y.: Wiley.
- 22) Henderson, R.W.(1981). *Parent-child interaction : Theory, research and prospects*. N.Y.: Academic Press.
- 23) Hoffman, M.(1984).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N.J.: Erlbaum, 279-324.
- 24) Jones, E. & Davis, K.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 Psychology*, 2. N.Y. : Academic Press.
- 25) Kelley,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5).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26) Kohlberg, L.(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김민남 역. 서울 : 교육과학사.(원본발 간일, 1984).
- 27) Lepper, M.(1981).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children*. vol. 14.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28) Levenson, H.(1973). Perceived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9, 268-274.
- 29) Lifshitz, M.(1973).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dimension as a function of age and socialization milieu. *Child Development*, 44, 538-546.
- 30) Magoon, R. & Garrison, K.(1976). *Educational psychology*. 12th ed. Bell & Howell co.
- 31) Nicholls, J.G.(1978). Causal attribution and other achievement-related cognitions : Effects of task outcome, attainment value, and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 379-389.
- 32)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 Y. : Free Press.
- 33) Reeder, D. & Spores, M.J.(1983). The attribution of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4, 736-745.
- 34) Rest, J.(1983). Morality.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556-629.
- 35) Ross, M. & Ditecco, D.(1975).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1, 3, 91-109.
- 36) Sosis, R.H.(1974).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of another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93-399.
- 37) Weiner, B.(1974). *Achie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N.J. : General Learning Press.